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3개 대형사업 차질없이 추진”

취임 100일 맞아 정기연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

현장 중심 안전 관리 강화하고 건설 사업 적기 추진해 경제 활력 도모 여수 출신...“영호남 철도 네트워크 핵심 경전선 전철화 하반기 착공”

“현재 호남은 시공 중인 호남고속철도사업 2단계(광주송정-목포), 하반기 개통하는 보성-임성리 철도사업, 설계 중인 경전선(광주송정-순천) 등 시공, 개통, 설계 사업 3개가 균형 있게 진행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예정된 철도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호남지역 철도교통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남권 철도 인프라 구축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정기연(55)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역본부 근무가 처음인데 고향인 호남으로 오게 돼 마음이 편하다”며 “안전하고 따뜻한 일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은 고속선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국유철도자산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2004년 철도청 건설 분야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통합·출범했다. 그리고 2020년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는 광주·전남의 신규 철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철도시설 유지, 국유 재산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지난 1월 1일 호남본부장으로 취임해 지난 10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여수 출신인 정 본부장은 여수고와 숭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입사했다. 그는 2004년 철도구조개혁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으로 옮겨 국가철도공단 회계부장,

성과평가부장, 혁신성과처장 등 주요 직책을 거쳤으며, 경영노무처장을 역임한 뒤 호남본부장으로 부임했다.

호남본부 최초 행정 출신 리더로 발탁된 정 본부장은 “감사하고 소중한 기회”라면서 “PM제도 정착 안정화”와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M제도는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도입한 정책이다. 기존에는 각 사업에 토목, 건축, 전기 등 여러 부서가 각자 맡은 역할만 하는 식이었다면, PM제도는 각 팀이 각자 맡은 사업과 관련해 설계 단계부터 개통에 이르기까지 공정별 인터페이스, 공정 관리, 예산 관리 등 전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방식이다.

본부장 부임과 함께 주 1~2회 현장 점검을 실천하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건설 현장에서 단장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PM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또 “호남본부가 관리하는 59개의 철도 건설 현장과 근로자, 직원들의 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소규모 안전 취약 지역 중 13곳을 선별하고 안전패트rollers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불시점검을 통한 점검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기연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이 광주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호남본부는 현재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크게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호남본부는 지난 2015년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송정)를 개통한 이후 고막원에서 임성리역 간 44.6km 고속철도 전용선을 신설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건설 중이다. 현재 노반공정 약 40%가 진행 중이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2단계 구간을 건설 중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이 완료되면 전남 지역을 지나는 철도 노선들이 호남고속철도를 중심으로 연동해 고속 교통 서비스의 허브(HUB·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보성에서 목포 임성리역까지 82.5km 단선을 놓는 보성-임성리 철도사업은 올해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시설물 검증을 진행 중이며 영업시운전 등을 거칠 예정이다.

보성-임성리 전 구간이 개통되면 목포에서 보성까지 63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 기존 열차 대비 1시간 17분이 단축된다. 영·호남 여객 및 물류 수송체제와 남해안 관광벨트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송정역에서 순천역까지 경전선 전철화사업

도 예정돼 있다. 경전선, 즉 경남과 전남을 잇는 간선철도의 광주송정-순천 구간 121.5km 구간에 2조 여원을 투입해 선로를 개량해 남해안을 하나로 연결하고, 영·호남을 잇는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 노반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외적인 업무 외에도 정 본부장은 ‘직원들과의 소통’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자신의 호를 ‘다정다감’이라고 소개할 만큼 따뜻한 인간미를 가진 리더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이다.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소통의 장인 ‘공감톡’을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정 본부장은 부서별 직원들과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으며, 노사존중문화를 위해 지부장-대의원들과 분기별 차담회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호남본부는 유일하게 거점역이 아니라 직원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직원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본부, 따뜻한 일터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공단은 ‘KR ESG 경영전략’을 반영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철도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스타트업라운지를 조성하는 등 철도역 유류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호남본부는 이에 발맞춰 지난해 정읍역에 ‘키즈레일’ 철도어린이집을 개원해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고, 백양사역 어린이집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성공적인 개통 추진 및 현재 철도 건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HS효성첨단소재,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선보인다

자동차부품 탄소중립 박람회 참가

HS효성첨단소재는 23일 “2025 자동차부품 산업 ESG·탄소중립 박람회”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과 소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25일까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aT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99개 기업이 참가하며 친환경 소재의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자리다.

HS효성첨단소재는 ▲재활용 오토모티브 가메트·보조매트 ▲재활용 시트벨트 ▲페어백 분리 기술 등을 소개한다. 이번에 전시된 재활용 가메트와 보조매트는 재활용 소재 함유율을 기존보다 3배 높이고, 탄소 배출량을 34% 줄인 제품이다.

또 폐안벨트를 새 안벨트로 재탄생시키는 순환 재생 시스템과 버려진 에어백의 코팅층을 분리한 후 해중합(분해하는 화학 반응) 기술을



HS효성첨단소재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25 자동차부품 산업 ESG·탄소중립 박람회’에 참가해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과 소재를 소개한다. <HS효성첨단소재>

활용해 재생시키는 시스템도 소개할 예정이다.

임진달 HS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친환경 기술 개발 노력과 성과를 공유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소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



문재웅(왼쪽에서 네번째) 광주공장장과 은용철(왼쪽에서 다섯번째) 광주지회장 등이 23일 KIA 오토랜드 광주에서 열린 2025년 노·사·정 합동 안전결의대회에서 결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노사 안전 결의대회

노사·협력사 대표 안전 결의문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2025년 안전 환경 목표 달성과 임직원 안전 의식 확립을 위해 안전 결의대회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문재웅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장, 은용철 기아노조 광주지회장, 이도영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김무영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노사 대표와 협력사 대표들은 안전 결의문을 함께 읽고 서명한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결의문에는 ▲안전이 모든 작업의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며 이를 위한 기반 확보에 적극 동참한다 ▲스스로 실천하는 안전 문화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선진 안전 문화를 조성한다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율안

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협력 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의 안전보건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등의 실천 항목이 담겼다.

또 ‘안전 보건 퍼즐 맞추기’를 통해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안전 의식을 다시 다질 수 있도록 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공장·부서·그룹 단위로 안전 결의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현 기아 오토랜드 광주 안전시설장은 “모든 작업 환경에서 안전 최우선이 되는 문화 조성과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안전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지속가능한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중대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농지은행 119센터’ 운영 도시지역 농지 계약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농지은행 119센터’ 신규 운영을 통해 도시지역 농업인들의 농지 계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농지은행 119센터는 농지은행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에게 농지은행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업무 처리를 돕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섬 주민들은 농지 계약 등 농지은행 업무를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전남지역본부는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여수시 소라면에서 농지은행 119센터를 운영해왔고, 오는 5월 7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완도군 완도읍에서도 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여수와 완도에 각각 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관내 주민은 물론 인근 섬 주민들까지도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한 농지은행 업무 및 농지대장 등,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목포 용해지점 연산동으로 확장 이전

명칭 북항지점→용해지점 변경

광주은행은 “지난 21일 목포 용해지점 이전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광주은행 용해지점은 기존 목포시 산정동 북항지점을 연산동으로 확장 이전했으며, 명칭도 용해지점으로 바꿨다.

이번 용해지점 확장 이전은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용해지점 위치가 목포시의 주요 교통망과 인접하고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상업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만큼 유동 인구의 금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광주은행의 설명이다.

광주은행은 이번 용해지점 이전을 계기로 지역 밀착형 금융서비스 제공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서 대출을 확대하고, 창업 초기자금과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신뢰를 받는 금융 파트너로 자리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세얼굴

“개혁 통해 지속성장하는 축협 만들겠다”

김재필 광주축협 조합장

김재필(사진) 광주축협 상임이사가 22대 광주축협조합장으로 선출됐다.

23일 광주축협에 따르면 김 이사는 지난 22일 열린 광주축협 재선거에서 조합장에 당선됐다.

광주축협 재선거에는 전체 조합원 519명 중 46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김재필 신임 조합장은 “조합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조합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신임 조합장은 “개혁을 통해 조합원과 지속 성장하는 미래형 광주축협”이



신임 김 조합장은 전남대(동물산업학과·농학박사)를 졸업하고 광주축협 상임이사, 전대 농대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 20일까지로 2년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25.56 (+38.92)
↑ 코스닥	726.08 (+9.96)
↑ 금리(국고채 39년)	2.337 (+0.007)
↑ 환율(USD)	1424.65 (+4.05)
<small>(오후 5시 10분 기준)</small>	